

일체가 내 한마음 속에 있으니 용도대로 꺼내 써라!

20면에서 계속

계 재산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러느냐고 야단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야만 식구가 다 산다.” 그러곤 나가서 배를 바다에다 띄우려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냥 소리가 나더래요. “힘이 없이 하라니까, 물건에 뭐가 붙었다고 그걸 갖다 버리느냐?” 그래서, 힘이 없이 하고 작을 버리라는 말씀에 그걸 도로 실어다가 집어다 갖다 주고선 그냥 가니까 그래서야 부처님께서 받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스님네들도 속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단호하다면, 그냥 단호하게 말걸 수 있다면 그건 그만이지요. 그것처럼 배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지금 여기도, 정말이지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다 같이 와요. 내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냐고 그럴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공부 좀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그냥 고마워서, 자식이 그렇게 하고 손자가 그렇게 하니까 고마워서 그냥 따라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수만이 다 건져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 생이나 되겠습니까? 수천 생이 됩니다. 이 말씀에도, 그게 인과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지구라는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근본에 있는 에너지로 그냥 우리는 자유스럽게, 때로는 이 모습으로도 되고 때로는 저 모습으로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 우주 전체를 다너도 손색이 없죠.

그러나 그런이 아니에요. 이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현실이거든요. 과거 미래가 현실이란 말입니다. 내일이야 하는 교차로가 있을 뿐이지, 어저께야 하는 교차로가 있을 뿐이지, 그 교차로라는 것만 알면 그냥 이렇게 하나요. 그냥 한나데 ‘그 하나도 모두 공했으니 너까지도 보라. 네가 있던 말도 하지 마라. 너도 공했다. 삼세가 공했으면 너도 공했고, 네가 공했으면 내 몸통이 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공했다. 다 공했으면 힘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죄도 없고 업도 없고 인과도 없고 유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네가 없는데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리를 진정으로 알아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그 유전성이 폐쇄(廢)가 되기 때문에 그 약화된 아픔, 병세 이런 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공부 한다고 해서 아주 잘 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지 않고 살게 되고 또, 진짜로만 믿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자연적 웃고 살게 되고 생활도 지치지 않게 하고 가 게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부 없거나, 인과상, 유전성 모두가 다 무너지니까, 구름이 다 걸히니까 햇볕이 짙장 비쳐서 내 낮은 모습을 다 말려 준다. 이런 뜻과 같죠.

그래서 배운 글자로, 학식으로만 해서는 이 공부 못 하죠. 학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수화풍을 베게 삼아서 나온 거니까요. 우리는 지수화풍에서 그냥 폼짝없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피만 조금 안 돌아도 야단법석이지요? 물 한 컵 먹을 것도 없으면 야단법석이지요? 불이 없이 보세요, 또 불만 없어도 야단이지요? 공기가 없어 보세요, 또 그냥 죽죠. 뭐, 그러니까 모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 그 자체가 우리다 이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더 사실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난이 채 못 알아들어서 좀 더 사사다가 가시라고 그런 말을 못 했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

내가 매끈하게 애진 못해도 그냥 내가 실컷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대로 믿어 주세요. 그것이 진정고 진실이니까요. 어떤 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못 배운 거를 두 번 인가 세 번인가 상당히 고달프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 어느 때에 타다 남은 숯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숯을 집어서 그냥 글을 쓴 거예요. 글자는 모르고 쓰기는 멋지게 써 놓은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데, 내가.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자는 모르는데 그냥 숯으로다가 한문으로 몇지개 글을 써 놓았다면 그걸 누가 봐 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 속에서, 즉 말하자면 내 과거, 바로 불성 자체가 연결이 돼 가지고 ‘글자를 알려고 하지 마

다, 모두가.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믐밤에 풀숲에 앉았어도 십 리 안팎으로는 어느 거든지 거기를 범접치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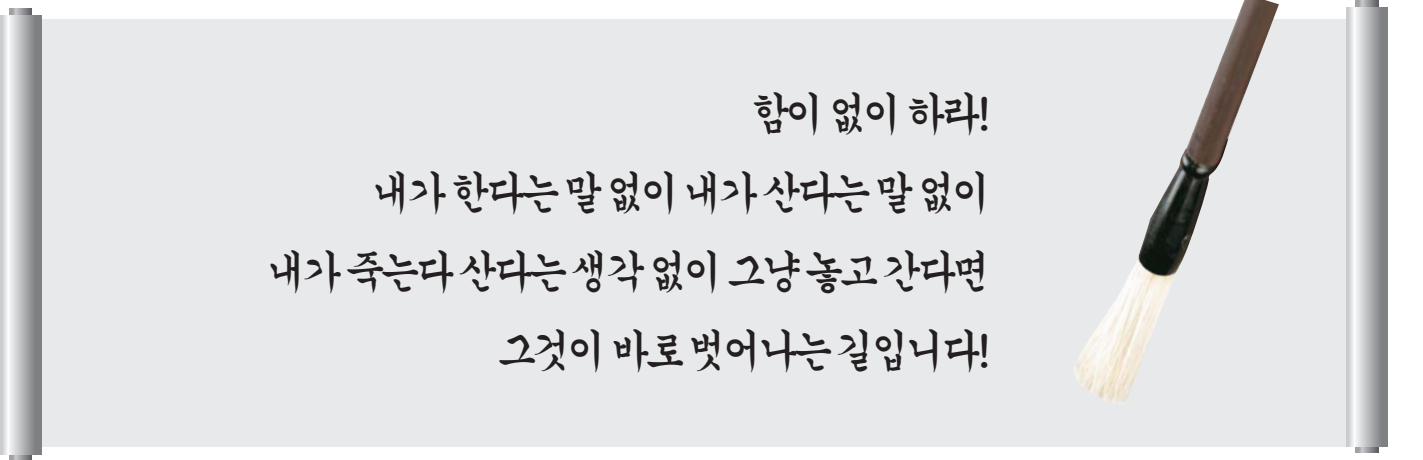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이였거든요. 허허허... 처음에는 뱀이 보이면 상당히 무서웠는데, 언젠가 지나가다 보니까 샐터 옆에 큰 뱀이라고 그럴 수가 없죠. 크니까. 구렁이가 이렇게 뽕뽕 뽕뽕 머리를 딱 들고선 있었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더러운 거냐, 깨끗한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마르는데 더럽고 깨끗한 게 어디 있느냐?’ 생각이 들어요. ‘급하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더러운 깨끗하나 이걸 묻

어가면 한 일(一)자고, 똥그렇게 뭉쳐서 머리 들면 흰 백(白)자고, 이것이 그냥 똥그러면 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로구나. 하나라고 가르치는 거로구나. 저게 나를 가르치려고 그랬구나. 저것도 바로 내 주인공과 풀이 아니야. 너도 그렇지?” 그러는데는 깜짝할 사이도 없이 그냥 가 버려요. 그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무심질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마주 쳐다본 게 한 너덧 시간 됐을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얼른 생각이 났으면 그게 얼른 갔을 텐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생각이 날 때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이든 뱀든, 내가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는 모습으로는 영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똥으로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랬죠. 여기 처음 이사 와서도 눈이 자박자박하게 왔는데 발자국이 탁 나 있었어요. 산에서 토굴에 있을 때 만났던... 앉았다 간 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 왔다 갔구나. 이렇게 모습으로 오지 않아도 될 텐데 너 왜 모습으로 왔니?’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모습으로 안 오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도리를 아신다면... 참, 사람이 짐승이 돼서 짐승의 대접을 받고 사는 것들을 또 봐 보세요. 그걸 아신다면 그런 짐승들을 보면 뭐,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되죠. 사람이 됐다 짐승이 돼서 산다면... 개도 그런 개를 봤거든요. 그리고 또 짐승이 사람으로 된 사람은 많고요. 처음으로 사람이 돼서 살면서 사람으로 또 태어나니까, 재생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도리를 좀 알고 가야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한 번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세 번을 죽어서 거듭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부처님이 그 한 자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저기고 간에 똑같이, 그런 분들을 한해서 마음공부들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이다음에는 ‘이건 죽어도 살아도, 떠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없구나. 은하세계 그렇게 많고 우주가 그렇게 많아요 떠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 떠나고 하는 게 없이 헤어지고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참나참나 화해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자유스럽게 사는 거구나.’ 하고 그럴 때는 내 생각이 많이 나시겠죠. 허허허...

그럼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짝이 없어요. 아주 무식하거나 무식하게만 만날 말을 하죠. 그렇지만 무식하더라도 이해하고 그대도 적용해 주신다면 그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 법문은 1999년 10월 3일 범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원 홈 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미음원센터에서 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이 하라!
내가 한다는 말 없이 내가 산다는 말 없이
내가 죽는다 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놓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입니다!

고 싶어서 죽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원하면 원하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꼭 가야만 된다 할 때는 가야 되겠죠. 이거는 양면의 살림살이뿐 아니라 두루 살림살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체에 두루 책임이 주어져서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뛰는 건요, 하나도 괴로움이 없고 하나도 걱정이 없고 하나도 하는 게 없고, 하는 게 없으면서도 진실로써 그냥 되는 거죠.

산에 다니면서도 그때는 참, 동네에 내려가서도 얻어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때는 모두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큰 소나무가 아니라 조그만 소나무들인데 물이라도 좀 빨아 먹으려고 했으면 위에 있는 순을 꼭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명인데 위의 순을 딱 떼어 놓으면 내 머리 떼어 놓는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만만 것이 바로 인연이 아니겠느냐.’ 하고선 그 맨 밑에 있는 가장자리 거를 때었으니 거기서 물이 뭐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물도 안 나오는 거를 껍데기를 벗기고선 빨아 먹고 이렇게 해 본 예도 많았습니까. 하지만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적게 먹어도,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그게 만약에 뱀으로 된다면 그냥 배고프지 않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라. 글자를 알아도 그 소리, 글자를 몰라도 그 소린데 글자는 알아서 뭘 하느냐? 글자가 누구 하나를 건져 줄 수 있는 거냐? 글자 하나가 누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거냐? 네 마음이다. 못 배웠든 배웠든 네 마음이나 그대도 해라.’ 하고 일러 준 거죠.

나. 글자를 알아도 그 소리, 글자를 몰라도 그 소린데 글자는 알아서 뭘 하느냐? 글자가 누구 하나를 건져 줄 수 있는 거냐? 글자 하나가 누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거냐? 네 마음이다. 못 배웠든 배웠든 네 마음이나 그대도 해라.’ 하고 일러 준 거죠.

느냐?’고 그랬어요. 되려, 반문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거기가 똥 마려우면 똥을 뉘라.’ 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만 같아도 문제가 없었겠지만 옛날에 나이 적었을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기를 ‘어, 일체 사람이냐 짐승들이냐 더럽고 깨끗한 것이 따로 없구나. 새는 새대로 사는 생활과 삶이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살고 모습이 있고, 모두가 제각기 모습이 있고 삶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그게?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는 까닭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똥을 누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썩 또 그게 없어지더군요.

그 구렁이가 보이는데 구렁이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만 노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 글씨 그거를 같이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었죠, 생각이 날 때까지. 영 일어나지도 않고 눈도 이렇게 돌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뭐,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허허허... 아이, 그냥 똑바로 마주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얼마쯤 앉아 있으니까 그 지그 고개 들고 있는 구렁이가 똥그렇게 있는 모습과 길게 가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서 ‘응, 기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가격
1인용 보급형: 220,000원
1인용 고급형: 580,000원
2인용 보급형: 480,000원
2인용 고급형: 680,000원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220,000원
1인용 고급형: 580,000원
2인용 보급형: 480,000원
2인용 고급형: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소리공방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철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500,000원 (설치비 포함)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급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관촬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글로벌케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이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등산객은 스님 저도 팔꿈치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로 다치고 고생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편찮지만 팔꿈치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급강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顔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화를 내며 고생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곽을 내며 하얀 이로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보면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급강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